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6.19)



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.1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
- 김영춘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극지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 "극지연구소는 2009년 공공기관 지역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"며 "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을 것"이라고 답변
[\(관련기사\)](#)



한-일-중 3국, 북극협력 비전 밝혀

- 한-일-중 3국은 일본 도쿄에서 제2차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개최(6.8)
- 3국은 각국의 북극정책 및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북극 과학분야를 중심으로 3국간 북극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함 [\(관련기사\)](#)
-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춘 북극협력대표, 일본에서는 시라이시 카즈코 북극담당대사, 중국에서는 가오 핑 북극특별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
- 3국은 향후 북극협력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(Joint Statement) 채택
 -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는 글로벌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공유
 - 북극문제의 글로벌 측면을 감안하여 북극이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와 여타 다양한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중요성 강조
 - 북극과학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사업(북극해 태평양 지역 환경변화 공동연구(PAG), 2020년 하계 공동 크루즈 포함 환북극 해양관측 국제프로젝트 참여 등)을 발굴하고 타 분야 협력도 지속 모색
 -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가 3국 북극협력에 있어 중요한 플랫폼임을 확인하고, 향후 중 대와의 결과를 북극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

시사점

- 3국 간 북극협력이 과학연구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인 바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·참여 필요
- 향후 북극이사회 등 북극 거버넌스 활동에 있어 3국 간 공조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



중국, 이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G2로 자리매김 하나

-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주요 8개 분야 과학연구논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, 중국이 미국과 함께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
- 피인용 횟수 상위 10%에 속하는 논문을 중심으로 주요국 영향력 분석
- 중국은 컴퓨터 과학, 수학, 재료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, 미국은 물리학, 환경 및 지구과학, 기초 생명 과학 및 약학에서 1위를 차지
- 중국은 2014년 기준 R&D 연구비가 약 380조원으로, 190조원인 일본의 약 2배 수준이며 세계 1위인 미국(약 460조원)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 [\(관련기사\)](#)

시사점

-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는 과학기술 인재 중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 [\(관련기사\)](#)
- 중국은 극지과학 분야에서도 제5남극기지 건설,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등 적극적 투자 확대 기초



캐나다, 북극 방위 강화를 위해 국사력 강화에 나설듯

- 캐나다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, "미국의 글로벌 안보 위협 대처 능력에 더 이상 기댈수 없다"며 국방 예산 증액 등 국사력 강화 시사
- 특히 내부 국방정책 검토(The Defence Review)에서 지난 수년간 북극에서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캐나다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북극 방위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
- 캐나다는 현재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%로 NATO 권장치인 2%에 못미치는 상황으로, 그동안 미국 국방력에 일부 의지했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[\(관련기사\)](#)

시사점

-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축소와 안보,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전방위적 북극 영향력 확대로 북극권 국가들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는 양상